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83.17	↑ 코스닥	749.28
	(+3.46)		(+4.10)
↓ 금리	2.631	↓ 환율	1449.05
	(-0.020)		(-4.35)



## 수익률 제자리, 수수료는 2배 ↑... 운용사만 배 불렀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 20년

수익률 年2.3%... 물가 못 따라가 운용기관 수익 6년 새 90% 늘어 원리금 비보장형도 저조한 성과 기금형 도입·수수료 개편 시급

428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 정착으로 적립액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기관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형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수수료 체계도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보험사 16곳·은행 12곳·증권사 14곳)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1조6841억원(DB형·DC형·개인형 IRP 합산) 규모다. 지난 2018년 기록했던 8861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3년간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연 2.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인 연 3.7%를 1.4%포인트(p) 밑돌았다. 기간을 10년 까지 늘려도 수익률은 연 2.4%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기존 퇴직



크게 오른 가공식품 물가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2.7%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오징어채(22.9%, 맞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등이 크게 올랐다.

1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시리얼 상품이 진열돼 있다. 식품업체들이 상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2.7%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오징어채(22.9%, 맞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등이 크게 올랐다. /뉴시스

금 제도 대신해 도입됐다. 사업체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적립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에 중도 해지가 잦아, 본래 취지인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주요 노후 소득원'이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IRP로 나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비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운용기관들은 낮은 수익률 원인으로 88%에 달하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42개 운용기관이 판매한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3년 수익률 평균도 연 1.4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비보장형 상품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전체 적립금의 일부를 떼가고, 운용 성과 일부분을 추가로 떼가는 형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적립금의 0~0.1% 수준이지만,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최대 1%에 육박한다.

성과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각 운용기관이 수익률보다는 고객 확보에만 급급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비보장형 상품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운용사가 수수료를 때 손실액을 늘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품 이동에 제약이 많고, 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3500개사 법인 코인 거래 허용

거래소, 상반기부터 현금화 가능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 체납 재산 등의 이유로 몰수해 대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 계좌(법인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 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다.

기부·후원을 받는 대학,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총 3500여 개사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 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 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

## '두번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원조 삼성, 기술로 승부

올 상반기 '갤럭시S25' 엣지 공개 하반기엔 Z폴드7·Z플립7 시리즈 이르면 연내 두번접는 제품도 출시

삼성전자가 올해 차세대 스마트폰과 IT기기를 대거 출시한다. 올 상반기 가장 얇은 휴대폰으로 알려진 '갤럭시S25 엣지'를 공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 시리즈를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빠르면 연내화면을 두접는 '트리폴드(Trifold)' 스마트폰 등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5가 역대급 판매를 기록한 만큼 올해 모바일 사업(MX부문)으로 실적 상승을 도모하겠



(왼쪽부터) 갤럭시 S25 엣지, 갤럭시 S24 울트라 모형, 갤럭시 S23 울트라 모형.

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확장현실(XR) 기기 '갤럭시 XR'도 공개하며 IT시장의 주도권

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장 얇은 폰부터 갤럭시 폴드7 출시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슬림 모델인 '갤럭시S25 엣지'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엣지 모델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갤럭시 S25 엣지 모델의 시제품 견본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 유명 IT 팁스터(정보유출자)와 IT 전문매체는 오는 4월 또는 5월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S25 시리즈의 강화된 기능과 얇은 두께를 갖춘 모델을 애플 보다 빨리 출시해 신규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엣지의 두께가 기존 예상보다 더 얇은 5mm대로 삼성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휴대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을 갖춘 LTPO 디스플레이 ▲최대 화면 밝기 2600니트 등을 갖춘 전망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 시리즈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서는 폴드7을 두고 화면 주름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으로 디스플레이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한 빛을 쬐 때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ja\_tea@

### 메트로 한줄뉴스



▲전두환 비석 밟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사진 뉴시스  
▲최상목 대행,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오찬... "기술강국 이끌어주길"

▲輿論리위 "윤 대통령 징계 절차, 이전 위원회에서 종결... 관여 안 할 것"  
▲여 '쇄신 세미나' 참석한 김형오 "국힘 투쟁력 부족... 탄핵심판에 당당해야"

▲'목사방' 등 성착취방에 여가차관 "추경 시 디성센터 강화할 것"  
▲윤 탄핵, '인용' 58% '기각' 38%... 현재 탄핵 심판 '신뢰' 54% '불신' 41%